

국제갤러리, 12월 9일 장파 개인전 《Gore Deco》 개최

기자간담회: 2025년 12월 9일(화) 오후 12시

전시기간: 2025년 12월 9일(화)~2026년 2월 15일(일)

전시장소: 국제갤러리 K1, K2

국제갤러리는 오는 12월 9일부터 2026년 2월 15일까지 K1과 K2에서 장파의 개인전 《Gore Deco》를 개최한다. 장파는 회화와 글을 통해 '그림'과 '아름다움'에 대한 고정된 개념을 비판하며, 여성적 그로테스크와 역사적으로 타자화된 감각들을 시각적으로 탐구해왔다. 그는 남성 중심의 시각 언어에 의문을 제기하고, 여성주의적 주체성을 회화적 어법으로 확장하며, 여성의 신체 및 감각을 주체적 형상으로 재구성한다. 국제갤러리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개인전은 전시 제목과 동명인 회화 연작 〈Gore Deco〉를 비롯해 드로잉, 동판화, 실크스크린 벽화 등 다양한 매체의 작품 약 45점을 선보인다. 이를 통해 작가는 전통적 여성 이미지를 재맥락화하고, 유머와 비틀기를 활용하여 기존의 시선을 전복하고자 한다.

《Gore Deco》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신체와 정체성이 폭력적 구조에 놓이게 되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탐구하며, 동시에 '장식'이라는 개념이 내포한 위계적 함의에 주목한다. 'Gore'는 여성, 퀴어, 소수자 등 중심부에서 배제된 주체들의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상징적 폭력을, 'Deco'는 종종 하찮거나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온 장식성과 그에 얽힌 미적·사회적 질서를 상징한다. 전시는 서로 생경한 두 감각을 병치함으로써, 신체와 장식, 숭고와 혐오, 위계와 향유 사이의 미묘한 긴장과 균열을 회화적으로 풀어낸다. 이는 관람객으로 하여금 단순히 회화적 전통 자체를 해체하고 부정하고 냉소하는 것에 머물게 하는 대신, 기존 질서의 편협함을 감각적으로 수용하고 회화적 표현의 확장된 경계와 새로운 미학의 가능성을 묵도하도록 이끈다.

'Gore'와 'Deco', 두 요소의 만남은 K1과 K2의 전시장 곳곳에서 발견된다. 먼저, K1 1층 안쪽에 자리한 전시장에서는 상징성을 띤 삼각형과 십자가 형태의 캔버스들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성삼위일체와 원근법의 역사 이래 인간의 이성을 상징해온 삼각형은 거꾸로 걸려 있으며, 영적 영역을 상징하는 십자가는 내장 이미지로 장식된 채 '여성화'되어 있다. 마치 내장이 걸린 교회에 들어선 듯 기괴한 느낌을 주는 이 공간은 기존 질서를 개념적으로 해체할 뿐만 아니라, 고대 건축 양식의 프리즈(frieze)를 연상시키는 실크스크린 기법의 벽화를 통해 과거 여성 재현의 이미지사(史)를 바라보는 작가의 비판적 관점을 응축한다. 장파는 여성의 몸과 정체성이 역사적 맥락 속에서 사회적 폭력 구조에 포획되는 예시들을 수집해 이를 장식적인 틀 안에 열거한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회화 곳곳에서도 발견되는데, 마치 내장의 표면에 아로새겨진 것처럼 보인다. 이는 타투라는 장식적 요소를 통해 회화의 재료인 물감을 한순간 육화하고 회화 감상의 전통적 관행을 교란시키려는 작가의 전략인 셈이다.

K1 2층 전시장에서 장파는 해골 도상의 그로테스크함이 다채로운 색감, 그리고 장식성과 충돌하며 자아내는 기이함을 바탕으로, 하위 범주로 자리매김해 온 장식의 역할을 재정의한다. 그는 캔버스 중앙의 해골 형상보다 형형색색 화려한 색감의 배경을 더욱 부각시킴으로써 회화에서 전통적으로 통용되어온 형상과 배경의 위계를 무력화한다. 또한 회화면에 장식물, 금속 하드웨어, 머리카락, 거즈, 스티커 같은 비전통적이며 비천한(abject) 재료들을 장식적 요소로 과감히 도입해, 개념화된 색채의 이상을 방해하고 개념과 물질 사이의 경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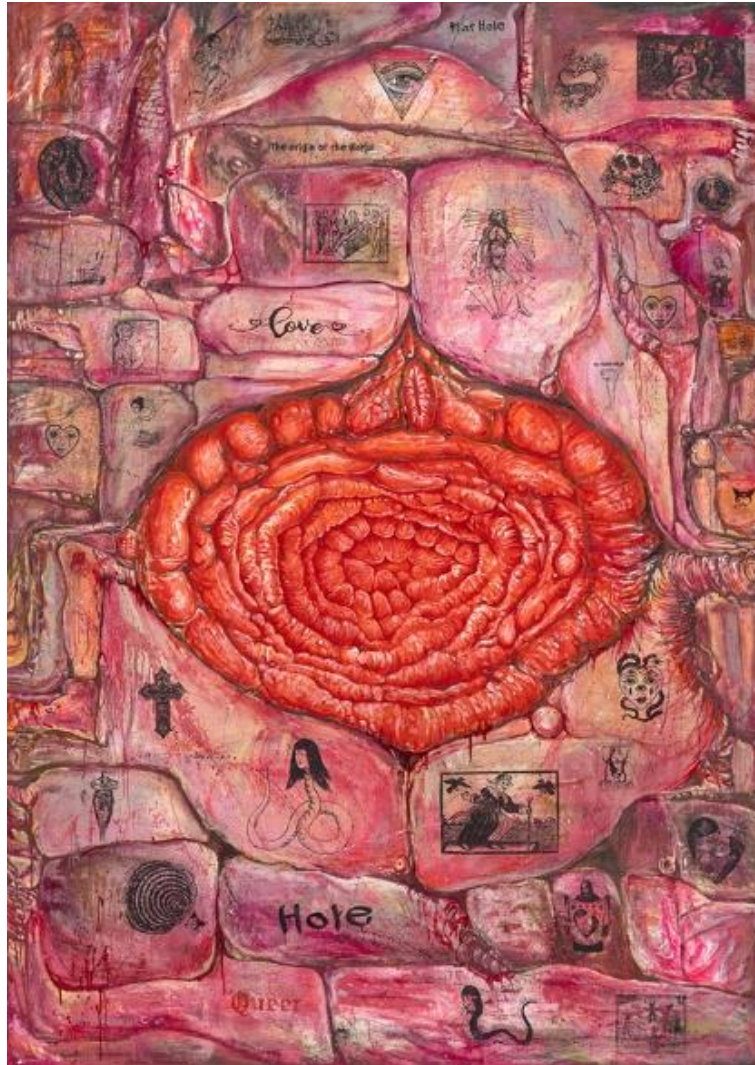
를 해체한다. 이러한 작가의 방식은 억압된 육체의 상흔을 장식으로 치환하고, 육체적 감수성을 회복시키며, 고통의 재현을 향유의 경험으로 전환한다.

K2 전시장에서 장파는 여성의 신체가 다루어지는 방식에 관심을 갖고, 역사 속 여성 재현의 이미지뿐 아니라 인터넷에서 발견한 동시대의 여성혐오 이미지, 에밀리 디킨슨(Emily Dickinson, 1830-1886)의 시구 등을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캔버스에 전사한 후 파편화된 신체, 내장, 눈과 입술 같은 '구멍'의 이미지와 병치한다. 이처럼 회화적 순수성과 장식성 사이의 혼종성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작가의 전략은 냉소적 유희를 불러일으키며, 시각적 위계와 질서를 일시적으로 붕괴시켜 비판적 층위를 형성한다. 여기서 '몸'은 단순히 고통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그 흔적을 발판 삼아 감각적 전복을 수행하는 주체로 재구성된다. 회화 속의 상처는 응시를 요구하고, 분절된 육체는 우스꽝스러울 만큼 과장되며, 고통은 정념적 진지함에 포획되기보다 조롱과 유희의 형식으로 비틀린다. 이러한 웃음은 단순한 위안 혹은 해학이 아니라 제도화된 미적 감수성과 윤리적 판단을 교란시키는 수단으로 작동한다.

《Gore Deco》는 하위주체들의 감각과 새로운 시각적 전략을 통해 회화에 내재된 전통적 위계가 놓친 시선을 복원하고 동시대 회화 언어의 다양성과 유동성을 확장시키고자 한다. 이는 소외된 신체 경험과 장식의 감각을 매개로 회화가 지닌 가능성을 탐색하는 동시에 그 한계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다. 장파가 미술사와 이미지를 참조하고 여성 신체를 둘러싼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는 방식은 때로는 즉흥적이며 사르카즘이 섞인 유머를 동반한 저항으로 보일 수 있지만, 중국에 이는 작가가 회화를 향해 품고 있는 뚜렷한 응시와 진지한 태도를 드러내는 장으로 기능한다.

작가 소개

장파(b. 1981)는 2006 년 서울대학교 서양화과와 미학과를 졸업하고, 2017 년 동대학원 서양화과를 석사 졸업하였다. 주요 개인전으로 인천아트플랫폼(2020), 두산갤러리 뉴욕(2017), 소마미술관(2016), OCI 미술관(2011) 등이 있으며, 국립현대미술관(2024),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2024), 송은(2023), 아르코미술관(2023), 서울시립미술관(2015) 등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주요 소장처로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서울시립미술관, 서울대학교 미술관 등이 있다. 장파는 현재 서울에서 거주 및 작업 중이다.



장파(b. 1981)

〈Gore Deco – The Origin of the World〉

2025

Oil, oil pastel, silkscreen, transfer print on lin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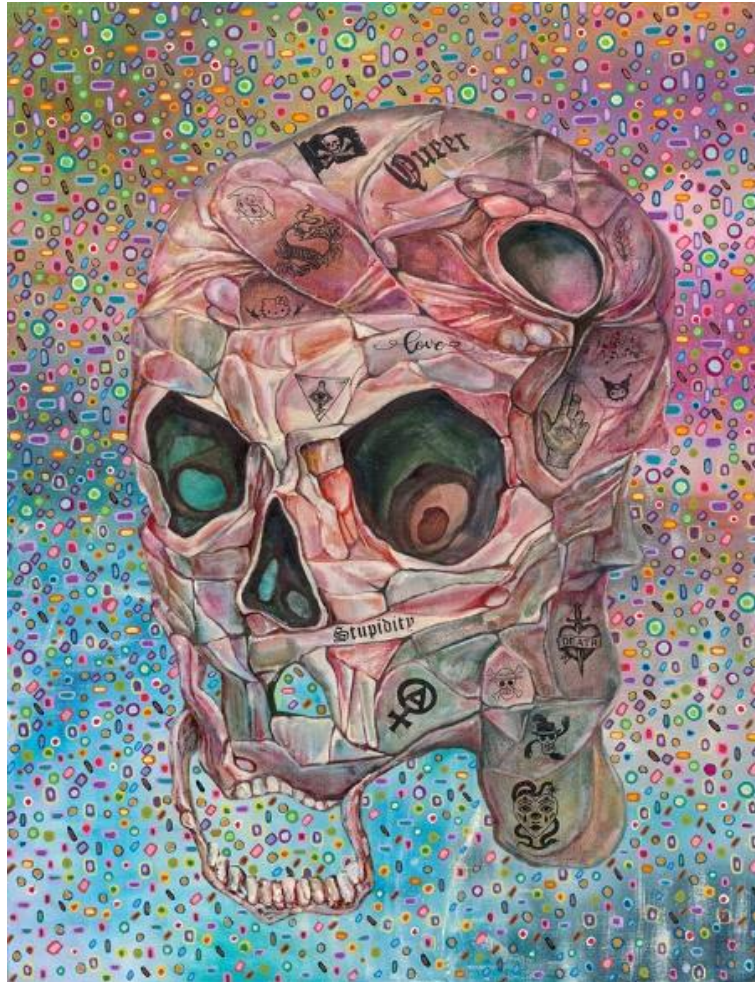
227.3 x 162.1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사진: 안천호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국제갤러리, 12 월 9 일 장파 개인전 《Gore Deco》 개최



장파(b. 1981)

〈Gore Deco – Stupidity〉

2025

Oil, oil pastel, silkscreen, transfer print on linen

145.5 x 112.1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사진: 안천호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국제갤러리, 12 월 9 일 장파 개인전 《Gore Deco》 개최



장파(b. 1981)

〈Gore Deco – Emily〉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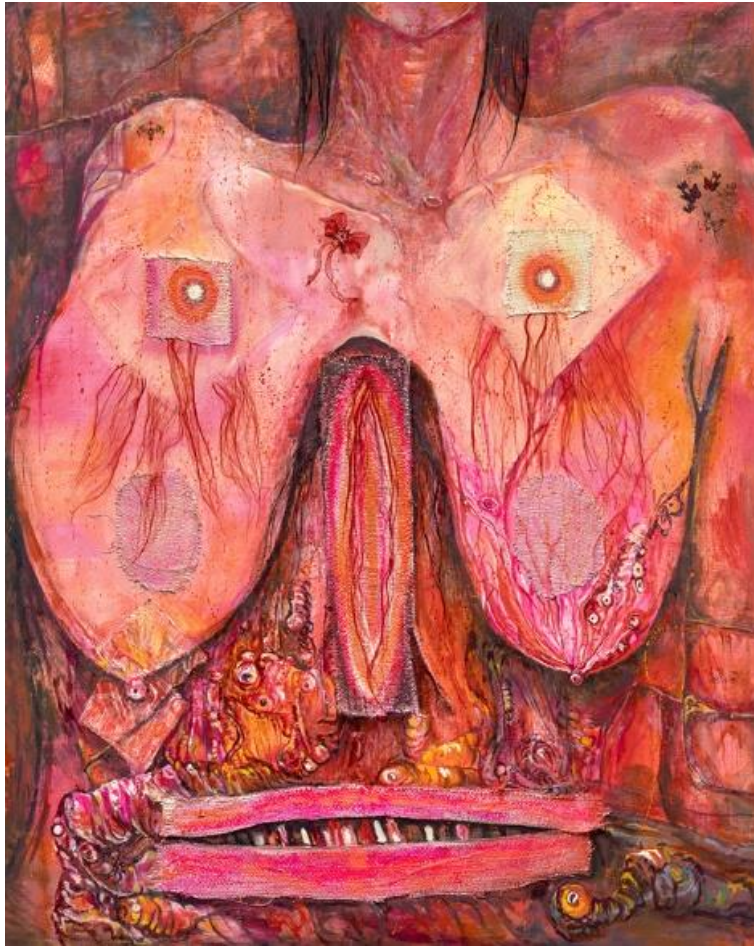
Oil on linen

162.2 x 130.3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사진: 안천호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장파(b. 1981)

〈Gore Deco – Oh, Those Breasts〉

2025

Oil, oil pastel, gauze, jute, human hair, transfer print on linen

162.2 x 130.3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사진: 안천호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국제갤러리, 12 월 9 일 장파 개인전 《Gore Deco》 개최



장파(b. 1981)

〈Drawing for Gore Deco #1〉

2025

Charcoal on paper

112 x 76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사진: 안천호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국제갤러리, 12 월 9 일 장파 개인전 《Gore Deco》 개최



장파(b. 1981)

〈The Visceral Eye〉

2025

Etching on Hahnemühle paper

19.8 x 15.2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사진: 안천호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본 보도자료에 기재된 내용의 기사는 **기자간담회가 끝난 이후**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보도자료 내 모든 이미지들은 함께 첨부된 작품 및 저작권 정보를 **필히 명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당 이미지는 전시기간 내 홍보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편집이 불가**합니다.

고화질 이미지는 아래 웹하드를 통해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WEBHARD.CO.KR | ID: kukjegallery | PW: kukje

KUKJE GALLERY | COMMUNICATIONS
T +82 2 3210 9807 | press@kukjegallery.com

KUKJE GALLERY

54 SAMCHEONG-RO, JONGNO-GU SEOUL, 03053 KOREA
T + 82 2 735 8449 | F + 82 2 733 4879 | WWW.KUKJEGALLERY.COM